

반다이산 지질공원: 교육 활동

반다이산 지질공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여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지질공원 내에 있는 반다이마치, 이나와시로마치, 기타시오바라무라의 초등학교와 연대하여 교실과 현지의 현장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현장으로 나가서 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지질학과 역사, 독특한 생태계에 관해 배웁니다.

지질공원의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방재 의식과 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화산인 반다이산은 실존하는 사례 연구 교재로 쓰이고 있습니다. 1888년 반다이산 분화 때는 이나와시로에서 86명이 화산 이류(진흙의 흐름)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러한 치명적인 대재해 이후 살아남은 주민들이 협력하여 지역사회를 부흥시켰습니다. 현재는 지질공원 직원들이 이러한 유산을 이어받아 자연재해 대응에 관한 훈련을 젊은 세대에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질공원에서는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학생 단체를 위한 프로그램도 제공하며, 직원들은 대학교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질공원의 인증을 받은 현지 가이드이자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지오 가이드'가 이곳을 방문한 사람에게 이 지역의 역사, 문화, 야생 생물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